

# 그 황량했던 젊음의 우울한 통과제의

## 광주세대의 청년기 독서편력

임동확

시인

나는 일전에 펴낸 나의 제2시집 「살아있는 날들의 비망록」을 통해 “즐거운 추억 하나 없이 쫓겨가버린 젊은 날”이라고 표현한 적이 있다. 또한 거기에 그 젊은 날의 “이제 빼만 양상한 흰빛의 사나움과 냉기를 거두어 가다오”라고 고백하기도 했다. 그렇다고 그것이 우리 세대나, 내게만 특별한 것은 물론 아니었다. 유난히 정치적 격변을 잇달아 겪을 수밖에 없었던 한국적 상황에선 거의 그런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유야 어떻든 나의 20대는 껌빛 그 자체였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한마디로 쉼에 대한 의지만큼 강력한 인간의 폭력성, 야수성을 체현한 이후, 난 지난 십여년의 세월을 응어리진 가슴을 활짝 풀어제끼며 웃음 한번 크게 웃어보지 못했다. 아니 그러기는커녕 스스로가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의 회오리에 휘말려들어 본의 아닌 실수들을 곤잘 저지르기도 했다.

돌아보건대 난 그런 우울하고 황량한 파시즘의 연대를 통과하는 유일한 위안의 수단으로 우선 손쉽게 접할 수 있었던 술을 택했던 것 같다. 지금 생각해 보면 무모한 만용에 지나지 않았으나, 당시 난 막걸리 반 바깥스쯤은 그대로 든 채 단숨에 거뜬히 마시기도 했다. 그래서 하루 밤은 술에 취해 남의 신혼 방에 들어가 “불켜, 이불 깔아”라고 고압적으로 소리치다 놀라 깬 부부에게 쫓겨난 적도 있었다. 어디 그뿐이라만, 거의 날마다 수업을 빼먹었음은 물론 끼니조차 전폐하다시피 하며 청년기의 한때를 소모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나는, 아니 엇비슷한 연배의 세대들은 마냥 술로만 해결할 수 없는 암흑의 현실을 책을 통해 뛰어넘고자 했다. 주지하다시피 당시는 대학에 공공연히 사복경찰들이 상주하고 있었고, 캠퍼스 내의 벤치는 물론 강의실과 교수연구실까지 무단으로 정보과 형사들이 제 집처럼 드나들던 시절이었다. 뿐만 아니라 이른바 문제학생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대학본부에 상주하는 요원들이 망원경으로 일일이 체크하고 있다는 소문이 나돌 정도였고, 또 학과나 씨클 안에는 반드시 그들과 연결된 프락치들이 있어 모든 행동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공포가 각자의 내면 깊숙이 새겨져있던 참으로 우울한 때였던 것이다.

예를 들어 학교 근처의 술집이라고 예외는 아니었는데 하루는 이런 상황을 견디다 못한 한 선배가 술에 조금 취해, “에잇 더러운 놈의 세상”이라고 푸념했다가 그곳까지 뺨쳐있던 그들의 축수에 어김없이 걸려들어 관할 경찰서까지 끌려 들어가 호된 곤욕을 치루기도 했던 시대였다. 그런 결과로 웬만하 친한 사이가 아니면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없었고, 무슨 중대한 얘기라도 꺼내려면 반드시 주변을

**돌아보건대 난 그 우울하고 황량한 젊음의 연대를 통과하는 유일한 위안의 수단으로 우선 손쉽게 접할 수 있었던 술을 택했던 것 같다. 그러나 동시에 나는, 아니 엇비슷한 연배의 세대들은 마냥 술로만 해결할 수 없는 암흑의 현실을 책을 통해 또한 뛰어넘고자 했던 것 같다.**

살펴보고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판단된 뒤에도 나즉이 속삭여야 했던 불신과 공포의 시대의 말없고 뒤달 없는 동지 중의 하나가 바로 책이었던 셈이다.

그 증거들 가운데 하나가 거기서 얻은 지적 자양을 바탕으로 전국 대학 곳곳에서 일어났던 ‘반유신 민주화’ 투쟁을 위한 기습적 시위들과 지하 유인물의 끊임없는 배포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나중에 ‘유신’이라는 가면을 쓴 거대한 공룡 같은 장기 독재정권을 결정적으로 무너트리는 계기로 작용했다고 보여진다.

각설하고, 차거운 이성이나 논리보다 뜨거운 정열과 행동이 우선적으로 요구되던 긴박한 시대의 스승은 단연 강의실이나 대학교재에 있지 않았다고 생각했었다. 당대 정치권력의 외압이라곤 하지만 대부분의 대학교수들은 학문적 전문성을 무기로 침묵의 편에 서 있었고, 심지어 ‘독재타도’를 외치는 학생들을 드러나지 않게 격려하지 못할망정 이른바 ‘학생지도’라는 명목으로 탄압의 전면에 당당히 나서 반대급부를 노리는 사람들과 존재했던 것이다. 또한 비록 일부의 교수들에게 해당된 경우였겠지만, 이렇듯 어정쩡하고 체제순응적인 대학교수들의 태도

등은 당연히 사제간의 건넬수 없는 불신으로 이어졌고, 자연히 상아탑에서의 공부보다는 뜻있는 선배들과 동료들을 찾아 어두침침한 하숙방으로 모여들게 했던 것이다.

그 멤버 중의 하나였다고 할 수 있는 나는, 그러나 대학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세칭 ‘의식화’ 된 학생이었다. 넉넉치 못한 집안의 둘째 아들로 태어나 은근히 법대나 상대쪽을 지망해, 고시합격을 바라던 부모님의 뜻과 달리 전격적으로 문학을 택하게 된 것도 여기와 직접 연관되어 있다. 그런데 그 결정적 계기가 바로 재수시절이었다.

나는 한번 실패한 입시로 낙향, 몇 개월을 그럭저럭 보내다가 대입이 시작되기 2~3개월 전에 당시 광주시내 소재 한 학원의 서울 진학반에 속해 있었는데 나는 거기서 한 시인을 만났다. 만났다고보다 나는 국어 수업을 받던 평범한 수강생 중의 하나에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당시 사학의 비리와 모순된 현실에 저항하다 대학강단에서 쫓겨난 재야인사였고, 지금도 전혀 변함없이 민주화를 위한 투쟁의 장소라면 가까이 앞장서는 시인이기도 한 그의 수업은 나의 인생 지도를 바꿔놓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그가 주로 강조해마지 않았던 것은 간략히 말해 전도된 한국 역사와 피폐할 대로 피폐한 당대 현실이었다. 다소 과장하자면 당시 나는 둔기로 나의 머리를 강타당한 느낌을 받았는데 그때 생각한 것 중의 하나가, “내가 과연 누구의 아들인가, 무엇을 위해 살려고 하려는가”란 것이었다. 그리고 문득 국민학교 6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글짓기 대회에서 “누가 대신 써주었냐”란 질문으로 대신하던 칭찬의 기억을 되살렸고, 동시에 그동안 ‘좋은 대학 좋은 학과’에 가야한다는 압박감으로 오래 눌러 놓았던 작가에 대한 욕망이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었다.

그러나 적어도 그해 오월이 일어나기까지 나는 그 대학에 대한 스스로의 불만족으로 심한 내적 갈등을 견뎌야 했다. 그래서 급기야 대학을 바꾸려고 체력장을 받기도 했으며, 그것마저 뜻하지 않는 일로 좌절되자 서울의 세칭 사립 명문대학에 편입하려고 준비하기도 했다. 그 무엇보다도 그때라도 마음을 돌려 고시준비만 하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던 생전의 아버지의 바람을, 전혀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올 봄에 운명하신 당신에 대한 가장 큰 가책감 중의 하나이기도 한데, 비록 그런저런 갈등에 휩싸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소위 ‘의식씨클’에 가입, 활동범위를 점차 넓혀 가고 있었다. 뒤늦게 신입회원 모집공고를 낸 ‘용봉문학동인회’ 회원으로 등록하기 이전에 이미 의기투합한 여러 씨클의 신입생 그룹과 의견을 나누고 모임을 가지면서.

물론 의식화 학습도 병행했는데 처음엔 주로 「대학의 이념」, 「청년 문화론」 등 기초서적들을 보다가 점차 이영희교수의 「전환시대의 논리」, 「이성과 이상」, 그리고 프란츠 파농 책들을 주로 보았던 것으로 기억된다. 후에 그 반언더그룹 형태의 1학년 그룹은 「현대의 휴머니즘」이라는 日書を 놓고 공부하기도 했는데, 그중에서도 나의 사고에 가장 결정적 충격을 주었던 책은 그 무렵에 출간된 「해방 전후사의 인식」과 「한국 노동문제의 구조」였다. 한마디로 나는 그 책들을 통해 한국의 역사가, 특히 현대사가 이토록 뒤떨어 있었든가 반신반의하면서 그 책들을 끝까지 다 읽어내지 못한 채 덮어 버리기도 했을 만큼 충격을 받았던 것이다.

한편으로 1학년 2학기에 들어간 대학신문 기자로 뛰면서도 문학회 활동도 적극적이었고, 나중에 그 문학동인회의 선배들만이 참여하여 선출하는 특이한 선거에서 회장으로 당선되는 영광 아닌 영광을 누리기도 했다. 감히 대학 2학년생의 몸으로 말이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봐도 신통한 것은, 당시 내가 속한 문학회가 비교적 낭만적이고 문예주의적 성향을 가진 회원들이 지배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내 의도대로, 혹은 내가 공부했던 커리큘럼을 강요해 본 적이 없다는 점이다. 오히려 그러기는커녕 일시적으로 열린 정치적 공간으로 인해 씨클등목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진 80년대 초반, 주로 우리 문학회 출신이 주축이 되어 새로이 결성한 ‘민족문학연구회’가 독립, 분화해 나감을 내심 환영하면서도 ‘문학은 어차피 문학이다’라는 생각으로 전혀 흔들림 없이 그 문학회를 이끌고자 했던 것이다.

그 무렵에 나는 또 대학문학상 시부문에서 당선되기도 했는데 그나마 지금의 글쟁이 행세라도 하려고 그랬는지, 나는 우연한 계기로 당시 고등학교 3학년 교과서에 이름 석자만 거론된 것으로 기억되는 김수영 시인의

시와 산문의 매력에 깊이 탐닉해 들어갔고, 동시에 그 계기로 알게 된 황동규, 강은교, 오규원, 정현중, 천상병의 시집 등을 구해 문학적 갈증을 해소해 갔던 것 같다. 솔직히 그 당시 나의 지적 수준으로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그런 영향인지는 몰라도 나의 시엔 어느 면에서 전통적 요소—특히 농촌체험이 강하게 투영되어 있는 광주·전남 출신작가들과는 달리—가 결여된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렇다고 당시 대부분의 문학도들이 열광해 가지 않았던 민족문학 계통의 작품들을 외면한 것은 아니다. 신동엽, 박봉우, 신경림, 이성부, 조태일, 양성우, 문병란 시집 등은 문학 지망생이었다면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었다. 특히 회원 중의 한명이 어렵게 헌책방에서 구한 김지하의 시집 「황토」는 문학을 떠나서 일종의 경이의 대상이었다. 우리들은 그禁書를 몰래 돌려가면서 읽었고, 나의 경우 그 시들 중의 몇 작품을 줄줄 외기도 했다. 또한 오월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김지하 문학의 대낮’을 전남대 대강당에서 개최하기도 했는데, 우리 회원들 대부분이 가난했던 관계로 주로 광주시내의 헌책방을 통해 철지난 「창작과 비평」, 「한국 전후문제 작품집」, 그리고 전문 문예지들을 아주 헐값에 구해 보았었다.

그래도 만족할 수 없어, 어쩌다 회원들의 집을 방문하는 날이면 그 집에서 마음에 드는 책 한권쯤은 훔쳐와야 직성이 풀렸고, 그렇게 당한 사람도 언젠가는 상대방의 집에서 같은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서로에게 관대한 시절이기도 했다.

그러나 그런 열정과 광기의 시절은 오래 가지 못했다. 가장 먼저 보호받아야 하고 신성해야 할 母胎마저 대검의 탐입을 받은 그 날 이후 어떤 식으로든 우리는 변해가야 했고, 또 변해 있었다. 먼저 그 해 9월 무렵에야 겨우 개강을 시작한 캠퍼스는 군입대와 군대에 가기 위해 휴학한 사람들이 적지 않았고, 그나마 마주치는 사람들에게도 예전의 활기를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런 구체적 변화를 확인하고 실감할 수 있었던 때는, 우여곡절 끝에 나 자신마저 군대에 끌려 가게 된 이후였다. 어떻게 겨우 군대 삼년의 복무를 마치고 돌아온 1983년 후반기, 문학회 안에서 가장 문학주의적이고 보수적이던 1년 선배 한명이 가장 치열한

투사가 되어 문학회를 이끌다 감옥에 가 있었고, 반대로 어떤 선배 하나는 정보부 기관원이 되어 있기도 했으며, 동료들중에 두명은 학교를 그만두고 신학교에 다니기도 했다.

더욱이 놀란 것은, 당시 고등학생의 신분으로 오월을 체험한 세대들이 문학회는 물론 전체 씨클의 리더그룹을 형성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돌아온 탕자’라고도 할 수 있는 우리 연배의 선배그룹을 전혀 인정하려 들지 않는 것이었다. 그 원인이야 여러가지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큰 이유중의 하나는 우리가 이미 속칭 ‘한물간 세대’이고, 그들이 폭압적 상황을 필사적으로 돌파하기 위해 정확히 체계를 잡아가며 습득한 학습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자연히 과학적 이념으로 무장한 제1세대에 의해 서서히 뒷전으로 물러나 씨클룸 주위를 오락가락하는 신세로 급속히 몰락해 갔는데, 내 개인적으로 그런저런

상황을 견디다 못해 급기야 일년 휴학하는 계기로 작용했다고 보여진다. 몇번으로 여과된 프랑크프르트 학과 계열의 번역서나 소문(?)을 통해 건네 들던 이념서적들을 직접 대면하고 학습해온 세대들에겐, 우리(나)의 모습은 정녕 실패한 낭만주의자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지만 나는 그 후 운동권과 서서히 멀어졌던 것 같다. 그리고 그때부터 다소 흔들리던 문학쪽에 대한 투신을 결심했던 것 같다. 체질적으로 볼 때 운동권적 활동가보다는 문학가가 훨씬 적합할 것 같았고, 무엇보다도 내가 세상에 기여할 자리가 바로 그곳이 아닌가 해서였다.

그 방편의 하나로, 나는 해남 대흥사 내의 한 암자에서 뒤늦게나마 혜겔이나 정치경제학 등의 철학서를 읽기 시작했으며, 심지어 결혼 후에도 아내의 도움으로 그동안 읽고 싶었던 책들을 나름대로 체계화하면서 실컷 읽기도 했다. 결코 후회할 일은 아니지만 ‘조직’

보다는 주로 개인의 ‘양심’에 의해 한국사회의 실천적 요구에 따라 거리에 나섰던 한 대학생으로서, 어찌어찌하여 졸업을 앞둔 시점에서 가장 후회된 것은, 많은 독서를 하지 못했다는 점 때문이었다.

그리고 십여년이 흘러 갔다. 스스로 나의 시적 스승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김수영 시인의 말대로 그 십년의 세월이 한 개인이나 집단의 상처를 치유하기엔 짧은 시간임에 분명하지만 나는 점점 그 옛상처마다 새살이 돌아옴을 느낀다. 문학이 도대체 무엇이고, 또 무엇을 하자는 것인가 등의 시지프스적 질문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워졌기 때문이다. 또한 나에겐 이미 내면화된 그 날의 흔적을 어떤 식으로든 지켜가야 한다는 의무감이 늘 긴장된 삶을 살게 하고, 동시에 그것이 고통만이 아닌 즐거움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서서히 일어나기 때문이기도 하다.

